

[입장문]

## 국민연금, 고려아연 최윤범 ‘찬성 안해’

### 기업·주주가치 훼손 및 거버넌스 문제 지적...회사 측 이사 후보 ‘0명 지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회의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 결정은 ‘미행사’를 포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최윤범 회장에 대해 명확한 신뢰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현 경영진의 적격성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거나 사실상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윤범 회장을 비롯해 회사 측 후보들 단 한 명에 대해서도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영풍·MBK 파트너스 측 후보들 3 명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중립이나 기권이 아니라, 현 경영체제에 대해 신뢰 부여를 하지 않겠다는 시그널로 해석됩니다.

더 나아가 국민연금은 회사 추천 감사위원 후보들 2 명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를 사유로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는 개별 인사의 문제가 아니라, 고려아연 이사회 및 감사기구가 본연의 감시·견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현재 고려아연 기업 지배구조 시스템 전반에 대한 문제 인식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판단은 이미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기관들의 권고와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글로벌 자문기관 ISS 는 고려아연 사안의 본질을 거버넌스 문제로 규정하며, 자사주 매입 이후 유상증자 추진, 불법적인 상호주 형성을 통한 영풍의 의결권 제한, 대규모 투자 과정에서 이사회 패싱 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국 ESG 기준원 또한 최윤범 회장 재선임뿐 아니라 감사위원 재선임에 대해서까지 ‘회사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를 이유로 반대를 권고하며, 감시 기능의 실질적 실패를 문제 삼았습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사들이 최윤범 회장 체제에 대해 명확한 신뢰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 지배구조의 구조적 결함과 통제 실패 여부에 대한 판단 국면에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은, 최윤범 회장 주도의 의사결정 구조와 이사회 운영, 그리고 감사기능 전반이 장기적인 기업가치와 주주권익 보호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MBK 파트너스·영풍은 이번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가 회사의 미래 경쟁력과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모든 주주의 공동 이익과 기업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에서 책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것입니다.